

금강 살리기, 지역간 갈등 43.6%로 가장 높아

- 14일 총발연 세미나에서 갈등중재와 조정기관 필요성 제기



금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갈등 중재·조정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14일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이하 '충남포럼')이 금강살리기범도민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강 살리기 사업의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과 협력방안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갈등실태와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병학 충남포럼 운영위원장(총발연 연구위원)은 “현재 금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강권역 7개 시·군간 중복 및 과다 사업, 편입농지 보상, 환경파괴 등 다양한 갈등상황이 예견되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금강권역 7개 시·군민 750명을 대상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인 241명은 금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답했고, 금강 살리기 사업

에 따른 예상되는 갈등의 범위는 '지역간 갈등'이 가장 크다며 총43.6%인 300명이 응답했다. 또한, 갈등해결 주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17명인 31.3%가 '중앙정부'라고, 갈등중재 및 조정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1%인 33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 실현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갈등영향분석의 정례화를 통해 갈등에 대한 사후 조정보다는 사전 예방과 합의에 중점을 뒀야 한다."면서 "「갈등순회 매니저제도」등 민-관-산-학-연-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되, 현장 위주의 자문과 아이디어 제공 등 보다 실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권형준 박사는 "금강 살리기 사업 내용 중 자전거길 및 수상레포츠 시설 조성, 접근성을 높인 활력있는 수변 공간 과 둔치 개발을 통한 도심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지역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하면서 "충남 폐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토양오염 및 수생태 보전사업을 병행하고, 금강 주변 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거나 대전-공주, 공주-부여, 대전-연기 등 대도시권과 연계한 금강변에 명품 빌리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세미나에는 공주시의회 김태룡 의장, 공주녹색연합 김택진 사무국장, 전양대 이윤환 교수, 단국대 오영근 교수, 충청남도 남광현 금강살리기사업팀장 등이 참석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의 상생협력과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 개최



충남포럼에서는 지난 11월 26일(목), 오후 2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논문발표자, 지도교수 및 학부모, 각 학교 응원단, 포럼 관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전국 대학(원)생 대상 충청남도 상생협력 갈등관리 우수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논문대회는 11월 9일(월)~19일(목)까지 총 13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11월 23일(월) 1차 심사를 거쳐 대학원생 부문 4편, 대학생 부문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2차 심사를 거쳐 시상식이 거행되었으며,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세종시 건설의 정책비밀관성과 딜레마”에 대한 연구를 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정경태 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학생 부문에서는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연구: 공주시·부여군 중심으로”의 연구를 공동연구한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강서영, 이동현, 이슬기, 이용일, 임현수 팀에게 최우수상이 돌아갔다.

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생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최우수상 1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 1팀에게는 충남발전연구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 2팀에게는 충남포럼상임공동대표상과 상금 30만원 등 총 42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충남포럼이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충청남도가 후원한 이번 논문대회는 논문의 완성도, 내용전달의 명확성 등을 평가하였고, 충청남도의 갈등현안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제안된 연구결과는 충남도정의 주요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